

# 박상우 장관, “국토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”

- 13일, 전국 국토청·국토사무소 합동 워크숍에서 안전과 청렴 다짐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3일(수) 오후 2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,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  -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합동 워크숍으로, 각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,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였다.
- 이날 워크숍에서는 “국민과 通하는 도로, ‘안전’으로 탄탄하게! ‘청렴’으로 든든하게!”를 슬로건으로 내걸고,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  - 각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하여,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,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.
  -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.
- 박 장관은 “넓은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,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”면서,
  - “그간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,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“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탬 것”이라고 하면서,
- 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”라고 덧붙였다.

2024. 3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